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39쇼핑 대표이사 박경홍

CONTENTS

- | | | |
|------------------------------|--|--------------|
| 2 나침반
안병훈 대학원장 | 10~11 교수 칼럼
김지수 교수 | 17 테크노경영관 특집 |
| 3 특별기고
정보통신부 배순훈 장관 | 12~14 Management Tips
벤처 비즈니스 배종태 교수
전자상거래 이재규 교수
금융공학 김인준 교수 | 18 국제교류코너 |
| 4~6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 | 15 인터넷 Hot Business Site | 19 연구실 소개 |
| 7 테크노 이모저모 | 16 동문기업 탐방
(주) 알신창업투자를 찾아서 | 20~21 테크노 가족 |
| 8 테크노경영대학원 소개 | | 22 AIM 소식 |
| 9 CEO 인물탐구
삼구그룹 총괄 사장 박경홍 | | 23 알림란 |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1998 SPRING Vol.2 No.2
발행일 1998년 4월 1일
발행인 안병훈
편집인 김영걸
발행처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02) 958-3246
FAX 02) 958-3010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63-7534

3호

IMF의 터널이 끝난 후를 대비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이 되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의 산고를 딛고 이제 제법 걸음마를 하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AIST의 명성과 철저함을 유지하면서도, 새 시대에 걸맞는 자립경영과 자율경영의 틀을 갖추려 애를 쓰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래대로의 계획이라면 금년이 장기발전전략상의 기반조성기 마지막 해로써, 내년부터는 도약성장기로 접어들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만, 마침 다가온 IMF시대에 발전전략상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IMF한파는 우리나라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국제규범과 일관성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모두 공감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동안 이곳에서 교육하고 연구한 내용들이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미명 하에 상아탑의 외침으로 치부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나라경제 및 기업경영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IMF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도 혹독한 단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의 초입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터널 속에서 버티기 위한 노력과 계획과 각오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거니와, 우리 KAIST도 그러하고 우리 대학원도 마찬가지이리라 봅니다. 터널 속은 어두울 뿐 아니라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서로 방황하다가 부딪치기도 할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도 이 터널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느냐에 온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이 아니라, 출구쪽은 밝고 환하며, 넓은 초원이 기다리는 그런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둘러붙어 있던 군더더기와 후진적 사고에서의 탈피, 급성장으로 인한 졸부적 거품제거, 그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쁜 몸으로 한껏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서로 돕고, 이해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숙연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잘 버티내고, 이와 동시에, 터널 끝에 나타날 새 시대에 대비한 저력을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금년을 체질강화의 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우리 대학원의 주축이 될 교수진의 확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이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년 3월에 세 분의 교수님을 모셨고, 외국인 교수 한 분을 모셨으며, 추가로 몇 분야에 우수한 교수를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세계화의 기반조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문화 비교경영 등을 담당할 미국인 교수를 모신 것이나, 금년도에 20여 개 해외 우수대학과 학생교류협정을 추진하려는 계획, 경영대학의 국제인증기관인 AACSB에의 가입 추진도 이러한 차원의 교육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시설은 예정대로 금년 중에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본격공사중인 2호관 경영본관은 물론, 식당 및 기타 후생시설도 이미 공사에 돌입하였고, 엘리베이터 달린 기숙사도 여러분 앞에 금년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외에도 금년에는 자비학생제도 도입, 우리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폭 확대, 일반MBA 프로그램의 추진, 벤처경영 분야의 확대 등 체질강화사업을 금년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 줄 일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기본에 충실을 기하며, 국제적인 시야를 갖기 위한 노력에 더욱 정진하면서, 결국 터널 후에 나타날 세계를 이끌어 갈 각오와 준비를 병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안 병 훈

금융 혼란속의 기술경영 과제



정보통신부 장관
배 순 훈

우리가 흔히들 IMF체제라고 부르는 현 경제난국은 금융혼란에서부터 야기되는 문제이다. 금융이 정상화되기 위하여는 기업의 신용이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기업의 신용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하여는 넓게는 단기성 예금을 장기성 투자와 연계하는 기본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는 돈을 가진 투자가(예금주)와 돈이 필요한 사업자(대출자) 사이에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만 금융업무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금융을 다루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정상화를 하는데 있어서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IMF의 조정을 받아가며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의 경제방향은 경쟁력 제고에 있다. 그리고, 우선적인 목표는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근본적으로 국내 노동력을 흡수할만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 그 성장은 노동력의 증가,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기대, 보유가능재원에 달려있다. 지난 10년동안 평균성장률이 9% 내외라고 한다면 향후 10년간 평균성장률은 6% 내외가 되어야 우리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은 국내저축과 외자도입을 해야 한다. 외자도입은 단기적인 회수를 원하는 자본제공자들과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산업체간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이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해가 상반되는 쌍방을 조정하는 업무에는 철저한 윤리관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의 문제는 이 조정업무가 비윤리적으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정적인 모델은 기술혁신이 없이 점진적인 생산성이 이루어졌을 때는 몇 개의 상수만 다를 뿐 어느 국가나 객관적인 최적치는 동일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이 정적인 모델이 전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정보시대가 되면서 기술 혁신에 의한 변화가 일차적으로 노동력의 생산성, 생활수준의 향상정도, 필요한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이러한 변수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의하여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단순한 1차적인 효과만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2차 또는 3차 효과가 1차 효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발전속도에서 일본을 앞서가고 유럽을 앞서갈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기술혁신에 있다.

기술혁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관리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 기술의 국산화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선진 기술을 습득하여 개량하여서는 2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의 전략과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술혁신 전략이 수립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기술 데이터를 경제적으로 구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직접적인(구체적인)방법으로 관리 경영되어야 한다. IMF체제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어 필요한 자금을 우리의 신용으로 마련할 수 있을 때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외자를 Rescheduling 한다고 해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용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외환 위기는 언제나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증대도 해야 하고 유리한 조건의 외자도입도, 외국투자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이제 국가 기술혁신체제를 재정비하여 경쟁력강화를 해야 할 때다.

이규성 교수,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1995년 9월부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해오던 이규성 교수가 3월 3일 새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이규성장관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첨단금융기법의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으면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소신으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수학, 통계학, 컴퓨터이론과 첨단 재무이론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 금융공학MBA과정을 개설하는데 산파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장관은 교수 재직시 재무분야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 경제 및 금융, 조세정책 등을 강의하였으며, 특히 국제경제질서가 세계화 되고있는 현실에서 개방적 시장경제와 정부의 간접유인정책을 강조해 왔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안병훈 대학원장은 이장관의 입각이 KAIST에서는 유능한 교수를 잃는 손실이지만 합리적 시장경제론자이며 미래감각을 갖고 있는 이장관이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장관 - 강창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제6기 과정을 마친 신입 과학기술부 강창희 장관은 바쁜 의정생활 중에서도 항상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회 통신과학기술 상임위원장으로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심의 및 처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97년 3월부터 6개월간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개설된 최고정보경영자과정에 등록하여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이론습득은 물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벅찬 실습과제들을 매주 수요일 7시간씩 출석하여 모두 완수함으로써 KAIST 교수진은 물론 동기생들까지도 놀라게 만들었다.



차동완 교수, 한국 경영과학회 '98 회장선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차동완 교수가 '98년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경영과학회는 우리나라의 경영학과와 산업공학과 분야에서 경영관리의 과학적 이론정립을 위하여 계량적 분석방법과 행동과학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회로써, 현재 1700여명의 회원과 5개의 지방지회(부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및 3개의 전문연구회(MIS, 정보기술,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교환프로그램 협정 체결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미국의 RPI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1월 14일(수), 오전10시 흥륜캠퍼스 1호관 소회의실에서 미국의 RPI(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대학과 국제교환프로그램 협정식 행사를 가졌다.

RPI측에서는 Dr. Robbee Kosak(Vice President of Institute Advancement), Dr. Gene Simons(Associate Dean, Management) Dr. William Shumway(Director, Corporate & International Advancement)가 참석하였고, KAIST측에서는 김충기 부원장, 안병훈 대학원장 외 교수, 직원,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협정서 사인 및 협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3년차 이상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환(Exchange of Students)과 상호학점인정, 교직원 상호교환(Exchange of Faculties and Staffs), 원격강의시스템 등의 첨단교육 및 연구활동 협력(Research and Educational Cooperation)을 위한 정보교환 등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연구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발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KAIST 27주년 기념 수상식에서

(김영배 교수 우수강의상, 이재규 교수 학술상 수상)



김영배 교수는 '97학년도에 개설된 930여개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하여 원 전체로 2명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우수강의상을 수상하였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앞으로도 전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인 학생들에게 모든 면에서 수준높은 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배교수는 '86년에 KAIS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영공학전공 책임교수(학과장)로서 강의, 학생지도 및 학사운영에 있어 헌신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재규 교수는 '95.1, '96.12(2년) 기간 중에 국제저명학술지에 10편, 국내학술지에 2편, 국제학회에 13편 그리고 국내학회에 11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총 36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월 평균 1.5편이라는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95년 8월에 개최된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발표한 논문(DAS: Intelligent Scheduling Systems for Shipbuilding)이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로 선정되었고, 또한 '97년에는 2편의 논문이 각각 30th Hawaii Int'l Conf. on System Sciences에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및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발표논문들의 SCI Citation 평가도 우수하여 이번에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신임교원 소개

테크노경영대학원 통신경영분야와 어학교육분야에 신임교원으로 안재현교수, Betty J. Chung교수가 부임했으며, '98년 9월에는 조직/전략분야에 이제호 교수가 부임할 예정이다.

안재현 교수는 서울대에서 산업공학 학사('84) 및 석사학위를('86), Stanford Univ.에서 박사학위('93)를 취득했으며, 전공분야는 통신경영전략과 의사결정이다. 미국 AT&T에서 Senior MTS로 근무하던 안교수는 앞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통신경영분야를 연구·강의 하게 될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인 Betty J. Chung교수는 미국 Vermont대학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95)학위를 취득했으며, 주 연구 분야는 비교문화 및 국제교육, 조직과 리더쉽이다. 일리노이대학에서 Visiting Assistant Professor로 있었으며, Coopers + Lybrand, LLP에서 consultant로 일하는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봄학기에 Cross Cultural Management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 하고, 또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어학센터 설립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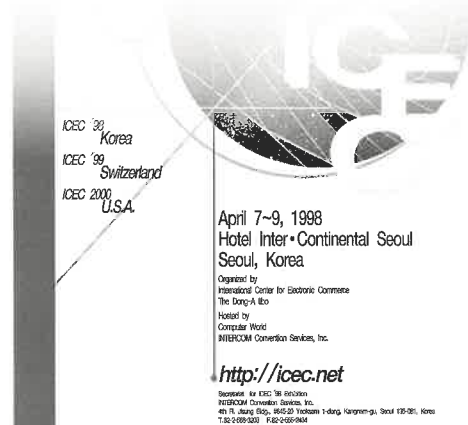
이제호 교수는 St.Louis University 학사('86),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사('94), 박사('96) 학위를 취득했으며, 전공분야는 전략경영전공이다. 1996년부터 미국 Dallas에 있는 Texas 대학에서 Visiting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중인 이교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기술혁신전략과 진화경제학 분야를 연구, 강의 하게 될 것이다.

'98 전자상거래 국제학술대회(ICEC '98) 개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연구교류의 장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사)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ICEC), 동아일보사, 매일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 Korea Herald사가 공동주최하는 '98전자상거래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ICEC '98: Internatioan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98 and Exhibition)가 1998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ICEC '98은 전자상거래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대규모 학술대회로서, 1999년에는 미국, 2000년에는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CommerceNet과 유럽 SEMPER 등의 전자상거래 핵심인사들의 주요동향에 대한 특별강연과 실천 경험인사들을 통한 사이버뱅킹, 인증기관 관리, SET에 관한 기술적인 강연 등이 제공된다. 또한 각 학문분야의 석학들이 대거 참가하여 인터넷 경제학, 가상기업, 공급체인관리, 에이전트 연구 등을 발표하게 되며, 15개국 50여편의 기술논문과 16개의 논문발표 및 9개의 패널 토의를 통한 풍성한 토론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과 전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의 특징은 학문적 연구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품과 성공 사례 발표가 있다는 점이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18개의 한국어 튜토리얼도 제공된다. 또한 ICEC '98은 정부와 기업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구현해야 할 정보화산업사회의 전략, 정책, 철학 및 이정표로서, EC를 국내에 전파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학위수여식과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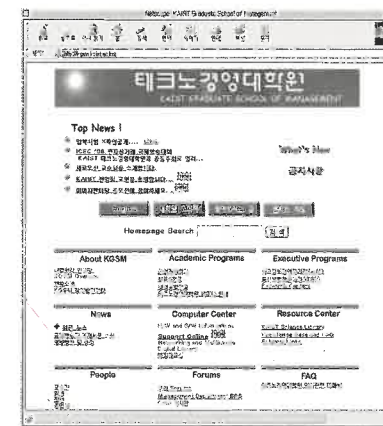
2월 20일(금), 대전캠퍼스에서 '9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으며, 학사 510명, 석사 670명, 박사 218명 총 1,398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산업경영학과 학사 49명과 경영공학전공 석사 39명, 박사 11명, MBA과정(석사) 112명, 으로 총 211명의 인재를 배출하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개설된 MBA과정에서는 작년에 이어 112명에게 전문분야별 경영학석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학위를 마친 뒤, 기업에 복귀하여 1기생들과 마찬가지로 현업의 전략적인 분야에서 리더로서 일하게 될 전망이다.

3월 2일(월)에는 대전캠퍼스 대강당에서 '98학년도 입학식이 열렸다. KAIST 전체적으로 학사516명, 석사 720명, 박사405명 등 총 1641명이 입학하였다. 그 중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경영공학전공 석사 44명, 박사 22명이며, MBA전공(석사) 신입생 83명을 포함하여 총 149명이다. MBA과정의 각 전공별 입학현황은 각각 기술경영 37명, 금융공학 21명, 경영정보 4명, 통신경영 16명, 환경경영 5명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새롭게 단장 (<http://kgsn.kaist.ac.kr>)

장기발전전략을 비롯하여, 최신뉴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실어놓았다. '98년 2월, '97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고, 최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본 대학원의 논문들을 계속적으로 홈페이지 News란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입시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과 답변게시 및 98년 입학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대화방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Homepage)

'98년도 신입생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98학년도 경영공학전공 및 MBA과정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각 전공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영학 기초지식 및 컴퓨터 사용 Tool에 대한 방법론을 교육하여, 입학 후 새로운 교육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영공학전공은 26일(목)-28일(토), MBA과정은 전공별로 각각 기술경영전공, 환경경영/정책전공은 2월 16일(월) - 21일(토), 금융공학전공, 경영정보전공, 통신경영/정책전공은 2월23일(월)-26(목)까지 실시되었다.

기술경영 전공 (Techno - MBA) 경영자문실습 발표회

기술경영전공에서는 2월 14일, 국제회의실에서 지난 겨울학기에 실시한 경영자문실습 결과발표회를 가졌다.

(주)유성사에서 "중장기 성장전략"이라는 주제로 자문실습한 강병철외 6명

으로 구성된 팀(김보원교수 지도)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되었고, 성장기공(주)에서 '성장기공(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문실습한 양태철외 6명으로 구성된 팀(이승규교수 지도)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다.

MBA과정(금융공학전공)의 국제화 교육 실시

MBA과정 금융공학전공학생 19명이 봄학기동안 세계화,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98년 1월초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과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각 미국 협력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여러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며, 금융관련회사를 방문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가하게 된다.

마케팅 분야, 특별세미나 박충환 USC大 석좌교수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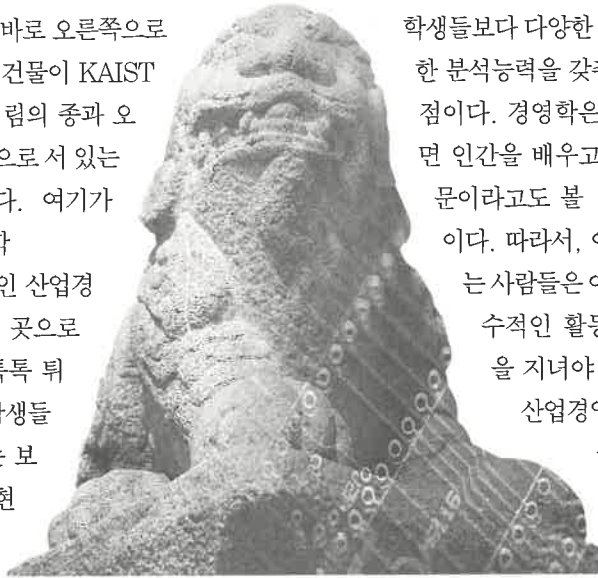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5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 KAIST 서울 홍릉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박충환 미국 USC大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를 초청하여 "제품가치에 기반을 둔 고객만족 극대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박충환 석좌교수는 '98년 여름학기 중에 MBA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이라는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모인 곳

산업경영학과

대전의 KAIST 대덕 본원 정문을 들어서게 되면 바로 오른쪽으로 하나의 아담한 건물이 KAIST의 상징물인 석림의 종과 오리엔트를 배경으로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사과정인 산업경영학과가 있는 곳으로 130여 명의 특목 튀는 학사과정 학생들이 지내고 있는 보금자리이다. 현재 산업경영학과에는



말하자면 다른 어떠한 경영학과 학생들보다 다양한 tool을 이용한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배우고 다루는 학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활동에도 관심을 지녀야 할 것이다.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러한 경영학의 특성에 발맞

추어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간을 생각할 줄 아는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왕성한 과학생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된 모습으로 매년 KAIST 내 대동체육대회의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또한 작년 말에는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의 발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H.O.T 경영이라는 학생회지가 탄생하여 타 학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KAIST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산업경영학과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 중 다른 하나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학회 활동이다. 현재 3개의 학회가 각각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경제제민은 경제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학습/토의하는 학회이며, Post-Managepia는 학교에서 제공해주기 힘든 주제나 현실적 문제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MEMEX는 여러 가지 새로

운 MIS(경영정보시스템) 기법에 관심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특히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 방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산업경영학과와 컴퓨터실을 관리하는 system manager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경영학과는 그 설립취지에 발맞추어 KAIST 내에서도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가을학기에는 10여명 정도의 호주 RMIT(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교환 학생들이 파견되어 공부해 왔으며, 봄학기에는 5~8명의 산업경영학과 학생들도 RMIT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경영학과에서는 몇몇 과목들이 영어로 개설되어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의 국제화 감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매년 가을학기에는 산업경영학동 곳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산업경영학과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 언급된 이야기들은 산업경영학과가 또는 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면모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산업경영학과 학생들은 여기서 나타난 것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지니고, 다가오는 21세기의 경영을 선도할 기술을 아는 경영인이 되기 위해 지금도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고 있으며, 그 꿈은 멀지 않은 미래에 곧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

이 승 철 기자

삼구그룹 총괄사장 박경홍

케이블 TV 업계에서 유일하게 창사 이래 3년 연속 흑자를 올리고 있으며, 올 한해동안 1천명의 신규채용과 1억달러의 외국 자본 유치 및 1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삼구그룹의 박경홍 총괄 사장을 만나 보았다.

KAIST와는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5년 봄, 테크노경영대학원 AIM과정을 2기로 수료했습니다.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KAIST와 산학협동 project를 수행해 왔습니다. 얼마전에는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영걸 교수님의 강의 시간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경영사례분석에 대한 심사를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독특한 경영스타일로 최근 Fortune지에 소개되는 등 남다른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은 남의 돈을 함부로 빌리지 말고 빌렸으면 빨리 갚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로 진출하면 사람들은 남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빚지지 마라. 빚지면 빨리 갚아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은 과다한 차입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삼구는 빚이 거의 없습니다. 그룹의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불황과 IMF 한파로 인해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타기업들처럼 엄밀한 투자수익분석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1천명의 사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공채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재관은 어떠한지요.

미래를 짚어질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능력은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무용인 수가 세계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꽃피우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학부모들의 강요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잠재된 능력을 똑바로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키워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얼마전 전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지금은 진정으로 올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한국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대한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머피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바랍니다. 바라는 것을 기원하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질테니까요. ㉠



김선아, 김창연 기자



우리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自己省察

김 지 수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外換亂으로 인한 IMF 관련 경제비상 사태 이전에도 날로 激化되는 국제경쟁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바,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우리의 경제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과거에 이룩하였던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우선 제기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며 오늘날의 기술 및 자본 霸權主義하에서 우리의 취약한 자본 및 기술축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나 사회에도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기에,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대로의 운영/경영을 하느냐가 關鍵이다. 흔히 한국은 천연자원부존은 빈약하나 人的資源은 풍부한 나라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 활용하느냐가 항상 국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은 지나온 역사와 각종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닥쳐오는 21세기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미 기술 및 자본에 있어 과거의 국경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지 오래이고 자본과 기술의 투자회수율과 그에 따른 위험도 등이 투자의 주요 잣대가 되고 있다. 愚見으로는 현재의 外換難도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보증 또는 지불을 해 줄 수밖에 없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산보다 많은 자금을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을까 한다. 이는 최근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영업이 폐쇄된 일부 종합금융사의 외채를 정부가

지불할 예정이라는 보도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하나의 개별 민간기업이 아니라 한국사회전체가 하나의 기업인 소위 '한국주식회사'로 보는 시각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작년의 起亞사태에서도 보여준 바 있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국민기업 이므로 부도를 내서는 안되며 특정기업에 인수되어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국민과 정치인들의 일부에서 주장되었고 산업은행의 지원에 의하여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기아자동차는 현대, 삼성, 포드 등의 인수를 포함한 합작등이 오늘에도 제기되고 있는 바, 왜 일찍 스스로 경제문제는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나 하고 自問한다.

그러면 과학기술분야 대학원교육의 정상화 및 선진화 기치를 들고 30년 정도 전에 발족한 '한국과학원(KAIS)' 즉 오늘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1996년 3월에 기술과 경영의 접목을 외치며 첫 걸음마를 디딘 KAIST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이 國內·外 및 院內·外의 급변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하에서 하여야 할 所任은 무엇일까? 1971년 'Mission-oriented School'로서 태어난 한국과학원은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의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그 모범이 되는 좋은 하나의 선례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보여주었다. 서울대학교와 포항

공대를 비롯한 많은 국내 대학교의 대학원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선도자적 역할을 KAIST가 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KAIST의 역할은 무엇이나를 가지고 지난 몇 년간 수차례의 'Vision Workshop' 등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KAIST와 他의 공계 대학원 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선두에서 이끄는 것이 선두를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법이며, 아울러 그냥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Idea를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는 二重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과학원의 발족이 당시 그만큼 절실했던 것은 시급한 경제개발에 참여할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두뇌 유출(Brain Drain)로 인하여 국내에 유입, 축적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파격적인 전원 장학금 지급 및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작, 오늘에까지 그 근간이 이어져 오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한국의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인문·사회과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기술패권주의하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은 기술자들의 경영Mind 증진 및 인문사회과학 바탕 위에서 기술에 관한 지식을 함께 갖춘 경영자들을 요구하도록 주위 기업경영환경이 변화였다. 이

러한 여건에서 국가·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기술과 경영의 접목'의 Catch Phrase를 가지고 기술경영, 금융공학 Program등을 개설하여 IMF지원으로 인한 경제비상사태가 올 줄 예견하였듯 지난 2월 40여명의 금융공학전공 MBA를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배출하여 현재 우리의 여러 금융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이미 75명의 기술경영전공 MBA들을 배출하여 삼성 계열 기업들을 필두로 여러 기업에서 선도적 기여를 하고 있음은 KAIST의 Mission-oriented School로서의 임무와 전통을 계속 잘 이어오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에 걸쳐 갑자기 들이닥친 IMF관련 경제 한파는 本院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운영과 경영에 보다 많은 어려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과연 연구중심 교육기관으로서의 KAIST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再三 熟考해 보아야 한다. 교육기관으로서 지난 30년 가까이 수많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 우리가 오늘 하여야 할 것은 이제 다른 고등교육기관도 상당수 배출해 내고 있는 단순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이 아니라 20여년전 우리의 산업체를 비롯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던 고급인력을 한국과학원만이 우월한 위치에서 공급할 수 있었듯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우리의 존재가 더욱 鞏固해 질 수 있다. 이는 독일통일을 이룬 鐵血宰相 Bismarck가 독일 국민들에게 요구한 피와 땀에 못지않은 Input을 우리가 KAIST발전과 그 미래를 위하여 투입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AIST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이 계속하여 좋은 연구결과와 성실한 강의와 논문 지도를 계속하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과연 기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이며 현장용

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배출과 연구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는 말보다 행동하는 실천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이리하기 위하여는 먼저 교수와 학생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현장에 더욱 많이 뛰어들어야만 한다. 'Theory is one thing, practice another'라는 표현과 같이 테크노경영대학원이나 KAIST에서의 교육·훈련이 실제 사회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원교육이 될 때에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차별화되는 독자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MBA교육이 과거의 공학석사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적인 면과 함께 교과내용의 실질적 응용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교직원들도 이러한 내용의 개발과 지원에 한층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아직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초기라서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어려우나, 일단 궤도에 오른 뒤엔 교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연가 및 훈련계획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시간과 자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Mission-oriented School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본다. 극심한 국·내외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는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비용은 그 것이 개혁으로 불리우건 構造調整으로 불리우건간에 조직 구성원들의 피와 땀, 자기희생을 강요하게 되며 이것을 자연스레 수용하지 못할 때에 비록 일시적인 시간을 벌지는 모르나 他律的 強制가 수반됨은 지난 몇 달, 아니 지난 1~2년 동안 우리 눈앞에서 보아온 사실이다. 96년 말 정리해고를 가능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우리 스스로가 유보한 결과, 우리는 우리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IMF구제금융하의 타율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를 받아들이게 됨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함과 아울러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는 뒤집어 볼 때, 外換難으로 촉발된 일시적인 流動性의 부족일뿐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고 하던 우리의 經濟船長의 잘못된 표현일뿐 인정하는 의문을 가지며,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外換難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있는 이 조직도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萬弗소득에서 갑자기 그 절반으로 줄 듯이, KAIST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아, 옛날이여!'를 되뇌어 부르는 상황에 오지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나라, 사회, 또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는 고독하고 힘든 것인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원 교육을 이끌어 온 KAIST가 그 지도적인 위치를 서울대학교 또는 포항대학에 추월당하지 않고 꾸준히 지킬 수 있기 위하여는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한국과학원이나 전두환대통령 시절의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좋았다고 아무리 생각한들 그것은 過去之事일 뿐이요, 오늘에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이나 아쉬움의 표출로서 끝날 뿐이다. 독일의 Bismarck수상이나 영국의 Thatcher수상 모두 국민들에게 고통을 수반한 피와 땀을 요구했기에 오늘날의 독일과 과거의 영국병을 치유한 오늘의 영국이 있게 된 것이다. 우리 KAIST, 또 테크노경영대학원에도 내일의 지도적인 위치를 享有하기 위하여는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自己省察에 입각한 노력과 희생만이 우리가 소속한 KAIST를 경쟁력이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영원한 KAIST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臨하고 熱과 誠을 다하면 우리의 희망적 Goal인 세계 Top Ten도 언젠가 이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F

벤처비즈니스 코너

- 1) 벤처기업과 기술창업과정
- 2) 벤처기업이 잘 자라는 토양
- 3) 벤처기업가는 만들어진다.
- 4) 벤처기업의 기회원천과 자금조달
- 5) 대기업에서의 벤처경영



벤처기업가는 만들어진다.

배 중 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벤처기업가는 타고나는가?

그간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어왔다. 예를 들면 기업가는 타고나는 것이고, 성공적인 기업가는 가족배경, 학력, 창업연령 등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훌륭한 기업가는 타고 나기보다는 만들어지고,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고유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능력과 행태/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 요인이 더 중요하고, 기업가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준비노력이 성공/실패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마음가짐

벤처기업 창업이나 대기업 신규사업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발견된다. 첫째, 성공한 기업가는 사업에 자신을 던져 넣는 강한 몰입도를 보여준다.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약한 의지와 금방 결실을 얻으려는 조급함과 약한 인내심으로는 안된다. 둘째, 성공한 기업가는 기회를 먼저 포착하고 그 다음에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 항상 기회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집착한다. 셋째, 이들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모호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수용적이다. 사업에서는 항상 명확하고 유일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학적/미시적인 엄격성에만 묶여 있기보다 여유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넷째, 성공한 기업가들은 창의성, 자립심, 적응력이 뛰어나고, 변화관리에 익숙하다. 이러

한 능력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다섯째, 이들은 강한 성취욕구와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가 강하다. 여섯째, 성공한 기업가들은 리더십과 책임감이 뛰어나다. 일곱째, 이들은 멀리 바라보나 긍정적 현실주의자이며 유머감각, 스트레스 해소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가의 준비과정과 새로운 경영교육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기업가의 마음가짐을 다듬질하고, 사업기회에 대한 꾸준한 패턴인식을 통해 기회의 창을 잘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혁신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필요하므로 기술지식과 경영지식도 쌓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배경을 가진 창업자가 이러한 경영지식을 다 가지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인창업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외부의 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창업자의 약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강하면서 네트워크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 성공적인 기업가는 기술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지식도 많이 보유해야 하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기술자보다도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한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경영지식은 ①리더십/비전창출 및 갈등관리/협상기술, ②팀워크 조성 및 인력관리 등 기업 분위기 창출 능력, 마케팅, 재무, 생산, 컴퓨터, 기술경영 등

각 부문별 경영관리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경영교육은 주로 대기업 중심이어서 벤처형 기업을 위한 새로운 경영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다. 기존경영학이 전문화/분화 경영, 정태적 이익관리에 초점이 있다면, 벤처경영학은 기회와 고객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경영이고 동태적 변화관리를 추구한다.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또 이미 창업한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을 위해서 벤처경영교육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최근 구직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설계에는 일반적인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회계, 조직관리 및 리더십,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경제 및 원가 개념,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지식을 미리 쌓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과목의 개발 및 개설을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창업의 꿈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실화해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경제여건에서 사회가 대학에게 요구하는 추가적인 미션이라고 생각된다. 창업성공의 핵심은 기업가에게 달려있고, 기업가의 양성에는 대학의 역할이 크다. 성공적인 기업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 ㉠

전자상거래 코너

- 1) 인터넷상의 비파세와 비관세 정책
- 2) 인터넷과 고용 및 교육
- 3) 사이버 은행의 도전과 기회



사이버 은행의 도전과 기회

이 재 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우리 나라 은행의 인터넷 활용은 능동적 선택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서구 은행들의 혁신적 활용에 대한 수동적 대응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IMF의 어려움을 딛고 훗날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한 적극적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말미암은 우리 은행들의 도전과 기회를 살펴보자. 먼저 Security First Network Bank(SFNB)와 같이 전적으로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사이버은행(Cyber Bank)의 도전에 기존의 지점망을 갖춘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이버은행의 강점은 24시간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홈뱅킹과 펌뱅킹(Firm Banking)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인터넷의 고객이 제한되어 있고 네트워크의 성능도 불안정한 단점으로 인해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사이버은행의 역할이 간과될 수 없겠기에 Bank of America를 위시하여 주요 은행은 모두 사이버은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단계까지는 고객에 대한 추가적 서비스 경쟁 단계로 비쳐진다. 그런데 기존 은행의 사이버은행 서비스 확장은 어떤 구조적 조정을 야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후속적으로 야기된다. 사이버은행은 서비스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방식의 지점의 역할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며 경제성 또한 떨어질 것이다. 이

시점에는 지점의 축소 현상이 불가분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피고용자의 관점에서 충격적인 일이지만 외국 사이버은행의 지점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지점망 구조로 경쟁력있게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로서도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Wells Fargo Bank는 2000개의 지점을 향후 5년간 1000개로 줄이겠다는 등의 적극적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다.

모든 직종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구성원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할 수는 없듯이 시장경쟁 체계하의 은행도 고객에게 가치 창조할 수 있는 부문만 그 존재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거리에 나가 보면 여러 은행들의 지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은행 지점을 찾아다니는 것도 번거롭지만 그 많은 지점의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은행 시대에는 한 지점을 여러 은행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공동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은행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종류의 복합서비스를 지점이 제공할 때에만 차별화된 존재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증권, 보험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와의 공유 전략을 조기에 추진하는 은행은 지점의 경쟁력과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리 대비한 은행은 기회를 가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은행은 대량 실업을 당하게 될 것 같다. ㉠



금융공학 코너

- 1) 금융공학의 이해
- 2) 파생금융상품과 금융공학의 발전
- 3) 위험관리의 부재와 IMF 경제위기
- 4) 기업경영과 금융공학
- 5) 전자금융과 금융산업의 미래



위험 관리의 부재와 IMF 경제 위기

김 인 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한국 경제는 과거 20여년동안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새로이 다가오는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탈바꿈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써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한국 경제라는 기업은 차입한 자금(외채)으로 임직원(국민)들에게 생산성을 초과하는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차입한 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경제라는 기업이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아서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 조정,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IMF와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경제의 부실화를 초래한 방안은 경영을 방지할 수는 없었는가? 우리의 여러 경제주체들이 위험에 대한 개념과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경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감히 지적할 수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의 외채는 상당부분이 단기 외채로 구성되어 단기적으로 상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채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만기 구조가 단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은 정부가 외채에 대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채권의

만기 구조 조정을 통한 면역 전략은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는 초보적인 위험 관리 기법이다. 우리 금융기관들의 위험 관리 실태는 어떠한가? 은행들의 자산 운용을 보면 여신 심사의 부재, 대출의 편중, 위험 자산의 과다 보유 및 채권의 만기 구조 문제 등 위험 관리의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금융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중금사들은 동남아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스프레드 수익만을 보고 단기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철저한 신용도의 분석을 외면한 채 장기 대출을 하여 부실을 자초하였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역외 펀드를 통하여 조달한 외화 자금으로 투기적 투자를 하였으며 헤징을 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일부 투신사들도 위험 관리를 외면한 투기적 투자를 감행하여 부실이 더욱 가중되었다. 기업의 차입 경영이 기업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를 외면한 채 차입 일변도의 자금 조달에 몰두해 왔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단기 차입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 시설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국가 경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영에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위험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은 자사의 상황이 어떠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위험을 안게 되었을 때는 위험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는 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정부 통제하에서 운용된 금융과 경제가 낳은 가장 심각한 폐단은 위험에 대한 개념과 위험 관리 능력의 부재이다. 국가의 암묵적 보장은 위험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경제 주체들이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 상황 하에서 세계화 및 자율화의 필연적인 진전으로 보호막이 견거지게 된 우리 경제 주체들은 무균실에서 성장하여 면역 기능이 없는 채 외부로 방출된 환자의 경우와 흡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조 조정과 병행하여 위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다.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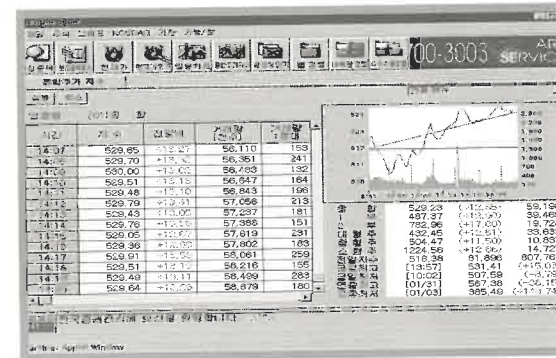


인터넷

Hot Business Site

한국증권전산

http://www.koscom.co.kr



한국증권전산은 전국에 위치한 증권사의 본점·지점과 증권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안정된 증권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증권업무의 토털 전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한국증권전산의 홈페이지는 경향신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 의해 best web site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요증권 종목시황을 인터넷상에서 40여개의 화면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종목시황에 대해서는 실시간 시세정보를 포함하여, 과거 데이터 등을 텍스트와 그래프로 제공하며, 채권정보, 선물정보, 옵션정보 등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3월 1일까지는 전 사용자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월 2일부터는 유료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와 무료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료화 전환사용자에 대해서는 시세자동갱신 기능, 종목평가 등이 포함된 약 113개 화면의 증권정보 JAVA 버전을 서비스하고, 무료가입자에게는 제한된 종목에 대하여 60여개 화면으로 구성된 증권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증권전산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온라인 주식거래 서비스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E*TRADE

http://www.etrade.com

E*TRADE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증권회사이다. 인터넷 상에서 바로 E*TRADE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각종 주식과 옵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투자용도에 따라 다양한 계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좌 종류로는 Individual, Joint, Investment Club, Corporate Partnership 등이 있다.

E*TRADE에서는 E*TRADE Mutual Funds Center를 이용하여 3500여개의 Mutual Fund에 자유로이 자금을 투자, 교환 및 회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Mutual Fund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이용할 수 있다.

E*TRADE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눈에 띈다. 접속하면 다른 유수의 증권회사들과 거래 수수료를 비교한 화면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기관투자자와 같은 수준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미국 기업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꼭 한 번은 둘러 보아야 할 곳이다.



박 승 룡 기자

21세기 벤처산업의 미래

(주)일신창업투자를 찾아서

요즘 우리나라는 과거 수십 년간 쌓여온 구조적인 경제문제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받은 뒤 저소비, 고물가, 고실업, 외채난 등 수 없이 많은 경제적 악재가운데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다. 이럴 때 경제를 회생시킬 대안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또한 홍콩과 합작투자한 의류체인 지오다노는 3년 만에 무려 800%의 수익을 올렸다. 이러한 결실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통한 틈새시장의 발견과 과학적 사업수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투자전략의 종합적 결과였다.

연론과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벤처라 할 수 있다. 벤처산업은 크게 벤처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주거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캐피탈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국내에 60개 정도의 벤처캐피탈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문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아직 한국에 벤처라는 말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90년에 설립된 일신창투는 현재 7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는데, 원금 기준으로 8백80억원에 달하며 전체 운용 자산은 1400억원에 이른다. 이런 대규모의 자금을 영상 미디어, 유통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걸쳐 약 13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면 곧바로 첨단기술만을 떠올리는 일반의 편견(?)을 깨고 일신창투는 “은행나무 침대”, “체인지 점수”,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의 영화제작으로 할리우드의 대형영화사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던 한국 영화계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

다. 일신창투의 시장조사 능력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실패한 영국의 보디숍과의 제휴를 성사 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대와 KAIST를 거쳐 Sloan School(MIT)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고정석 사장(경영과학 석사 8회, 현 경영공학파)은 정보통신 산업은 후발주자의 입장이어서 소액주주로 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영화 산업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레저 시장의 잠재력과 스크린 쿼터로 최소한의 기회보장이 있었기에 질 좋고 재미있는 영화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예견했다.

또 중국 등 동아시아 문화권 시장까지 겨냥한 전략을 마련했었는데, 최근 “은행나무 침대”, “모델 선인장” 등의 수출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정석 사장은 벤처 캐피탈이 단순한 전주(錢主)나 조립자(assembler)의 역할에서 벗어나 파트너가 될 것을 강조한다. 일신창투는 영화의 촬영, 섭외, 편집 등 영화 내적

인 부분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고, 외적인 부분들인 재정, 광고, 판권, 배급에만 참여하고 있다.

일신창투는, IMF로 인한 벤처기업들의 부도나 경영난으로 인해 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미국의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자연히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를 단순히 악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투자가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고정석 사장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개발하고 영어를 익히며, 대인관계 능력과 협상력을 갖춘 기술을 아는 경영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길 잊지 않았다. 또한 후배들에게 창업을 하는 꿈을 갖는 것은 좋으나 충분히 사회경험을 쌓은 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F



김선아 · 이승철 기자

Sneak Preview : 금융공학 재무정보실

김 동 석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새롭게 단장되는 테크노경영대학원 2호관의 3층 중앙부에 자리하게 될 재무정보실(가칭)은 첨단 금융기법 및 정보기술의 학습과 연구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 business game 및 원격화상회의의 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다기능 첨단 시설로 총면적 160여 평방 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꾸며지게 된다. 내부에는 Trading Room 및 부속 시설인 Server Room, Research Room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중심 시설인 Trading Room은 Notebook Computer 혹은 전동식 Recessed Screen을 갖춘 Desktop Computer를 통하여 실제상황에 가까운 거래 및 위험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Trading Game Server에 연결된 참석자 전원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되어 실시간의 거래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 및 기법을 실습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이론 및 기법을 개발하고 시험해 볼 수 있게 된다. Trading Room의 구조는 Business Game 및 회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Executive Board Room의 형태로 디자인되며 원격 화상 회의 및 강의 시설을 갖춘다.

Head Table에 위치하는 Control Panel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개인 컴퓨터의 화면을 교단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어 참석자는 자리의 이동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료를 제시하고 발표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 및 회의의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복도의 반대쪽 벽면의 중앙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각종 재무정보가 제공되고 모의 거래 시에 개별 포트폴리오의 현황 등이 실시간

Head Table에 위치하는
Control Panel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개인 컴퓨터의 화면을 교단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투사할 수 있어
참석자는 자리의 이동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료를 제시하고
발표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 및 회의의
진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에 display된다. Trading Room에서의 활동을 외부에서 관람이 가능하도록 복도측 전면에는 tinted glass나 one-way mirror를 설치한다.

Server room에는 재무정보의 저장·처리 및 trading game server의 역할을 하는 workstation급의 전산장비 및 부속

기자재, 원격화상회의를 위한 A/V system, LED 전광판 control unit 등이 설치된다. 필요에 따라 이 server room에서 오퍼레이터가 Trading Room에서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적절한 보조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강의 및 회의 진행에 필요한 일상적 조작의 대부분은 Trading Room의 head table에 설치되는 control panel에서 강의나 회의 진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Research room에는 한국증권전산, Reuter 등의 실시간 정보 terminal 및 연구에 필요한 전산시설이 구비되어 Trading Room이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첨단 교육시설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추구하는 “테크놀로지와 경영교육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의 제공”은 물론 교수기법의 발전 및 학습효과 증대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F



An Experience In KAIST

Sallie Lee Tin NG

Studying in KAIST has been an unforgettable and most memorable experience for me.



There have been many factors that contributed to my stay in KAIST. One of the main factors has been the kindness of professors and students of KAIST. RMIT students were often told of the prestigious status of KAIST and KAIST students, so we were a little bit anxious of what we will be confronted with. However, after arriving in KAIST, I discovered that there was nothing to fear, students were lovely and most of all, down-to-earth. KAIST has been a great place to learn and live in, for the past four months. The people I have met and the friends I have made, have made the experience in Korea, not just an unforgettable experience, but an invaluable journey that was most enjoyable. It is definitely going to be sad to leave them behind. The people in Korea are gracious, respectful and polite. It has been a culture shock, because most of us are not used to this kind of courtesy that the Korean people gave us. When I go home, I will tell all my family

and friends that they should go to Korea and that if they come, they should take me too, so I can come again.

KAIST also has been a great House of Learning, where I have learnt much about Korea, its language, livelihood, culture and economics. The day it snowed was a glorious day, it was unbelievable, it was at least a foot deep. This was bizarre, and everybody enjoyed it. I spent the day in snow ball fights with Koreans; it is one thing I haven't experienced back home. My time in Korea has been full of surprises and first time experience, such as eating kimchi and drinking soju.

What has been amazing was the hospitality and kindness of students and professors I have made in my days in KAIST. One example was the kindness of Professor Byung Chun Kim who organised the trips for us to Seoul and Kyeryong-San. We were very grateful for his thoughtfulness and kindness. Of course not to mention the friendliness of the Industrial Management students who has helped us throughout our stay in KAIST and organised parties for us. The caring nature of the KAIST students showed through when some students helped me purchase medication when I was ill early this semester and also encouraged me to stay happy and smiling. During the Chusok holiday, I was lucky enough to make a trip to Pusan, which provided for spectacular sightseeing. We went to Pusan Tower, Taejongdae beach, where we were able to take a lot of photos to bring home to our family and friends.

The environment of KAIST is very conducive to learning. I discovered that students in KAIST concentrate a great deal in achieving success in their studies. Hopefully this will rub-off for my future studies. I have learnt a great deal from the Korean people and hope to come back to KAIST again. It has been a wonderful experience for me studying in KAIST. **F**



이 글은 호주에 있는 Royal Melbourne of Technology(RMIT)학생인 Sallie Lee Tin NG 양이 1997년 가을 학기에 테크노경영대학원 산업경영학과 교환학생으로서 한국에 약 5개월간 체류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한 생활 체험 기입니다.

김성희 교수의 의사결정분석 연구실



해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회식 등 사석에서는 그 분위기의 절정을 이룬다. 최근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간다. 무슨 일에는 같이 움직이고 유난히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해 애정이 많은 연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려움을 수복 서로간의 깊은 유대감과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에서 연구실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F**

삶은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삶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김성희 교수의 의사결정분석 연구실은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의사결정분석 연구실은 1983년 김성희 교수가 KAIST에 부임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9명의 박사과 50여명의 석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는 12명의 전일제 석박사 학생들과 다수의 시간제 학생들이 연구실을 지키고 있다. 본 연구실 출신들은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사결정분석이다. 의사결정분석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이다.

초창기부터 축적해 온 의사결정분석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GDSS),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정보기술(IT)을 토대로 한 경

영혁신,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그 연구범위를 넓혀 왔으며, 현재에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ALS/EC(광속상거래 또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의사결정분석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된 데에도 이런 연구실 분위기가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실 멤버들은 의사결정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합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실로서의 위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 선배배간 격이 없는 관계를 통



최 학 열 기자

KAIST에서의 새로운 출발

김 보 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어느날인가 Frontier의 한 학생기자가 나의 연구실에 불쑥 들어와서는 테크노 가족란에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였다. 내가

별써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한지 일년 반이 지나 네 번째 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그리 바빴었는지 "과연 나와 테크노와의 본질적인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Frontier의 학생기자가 불쑥 내민 숙제가 나의 지난 일년 반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긴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크노에서의 삶을 조망해 볼 기회를 준 것 같다.

KAIST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은 것은 1995년 12월경이었다. 그 당시 하버드대학에서 학위를 막 마치고 교수직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한국에서 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였고, 몇 개의 대학들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런데 우연히 신문에 난 KAIST 교수채용공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원서를 팩스로 받은 뒤 이것저것 지원 관련 자료들을 모아 보내면서도 별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 당시 나와 KAIST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가 KAIST에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의 교수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

못해 KAIST에 다니는 친한 친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별다른 생각 없이 보내보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 나의 지배적인 마음 상태였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일은 긍정적으로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1996년 초, 추운 겨울날씨에 서울 홍릉과 대전을 오가며 논문발표를 하였다. 참 묘한 기분을 느끼면서 내가 왜 KAIST, 아니 보다 정확하게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것이었는지 등은 오랜 기간을 두고 스스로 생각해 볼 주제이지만, KAIST가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은 분명한 것 같다. 어쨌든, 나와 KAIST와의 인연은 이런 평이한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출발이 모두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부임한 1996년 8월의 여름은 너무도 더웠고, 홍릉 캠퍼스의 열악한 환경에 처음에는 놀라기도 했다. 축구 운동장만한(화학?) 실험실에다가 책상만 한쪽 귀퉁이에 던져주고 전화도 없이 여러 날을 보내야 했다. 그 해 9월부터 시작된 첫학기에 강의해야 하는 두개의 교과목 모두가 대전캠퍼스에서 개설되었다. 홍릉에 살면서 매주 목요일 새벽 5시에 차를 몰고 대전으로 내려가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강의를 마치면 금요일 오후 1시쯤 서울을 향해 고속도로를 타야만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음을 새삼 느끼곤 한다.

이렇게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처음에 가졌던 신선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이처럼 기운이 빠져가던 나에게 새

로운 활력으로 다가온 것은 경영시스템 연구실이라는 연구공간의 탄생이었다. 이는 첫 학기를 힘들게 마치면서 하나, 둘씩 석박사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어서 어색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나 학생으로서의 역할 인식과 공동의 노력이 무르익어 갔다. 어느덧, 10명의 MBA와 한 명의 경영공학석사, 모두 11명의 석사를 배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내가 마치 그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었다. 나를 그토록 신뢰하고 따라주었던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내가 왜 KAIST에 있어야 했는지,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완전하지만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는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를 경험한 것 같았다. 총명한 학생을 가르치고, 같이 학문의 깊이와 현실의 넓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가르치는 자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일 것이다. **F**



입학식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15,6년전 이기는 하지만 대학생들과 대학원 생활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 최고학부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자부심이 있었기에 오랫동안 시작하는 학업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나의 예상은 수업 첫시간부터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공계 출신인 내게 있어 경영학 분야는 비록 오랜기간 동안 회사생활을 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회사전체의 경영전략과 이의 공유를 통한 각 부문에서의 실행이라는 관점보다는 아무런 생각없이 그날 그날 주어진 문제해결에만 매달려 왔던 내게 있어 매우 생소하고 낯설은 것이었고, 내가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던가를 절실히 느끼게 하였다.

실제의 수업에 들어가서 첫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모든 과목의 첫 시간에 나누어주는 해당 과목의 SYLLABUS(강의 계획, 진도, 평가기준, 정규과제물 등의 강의 요강)였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KAIST에 입학하고 나서야 SYLLABUS라는 영어단어를 처음으로 접하였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지난 지금은 어쩔지 모르나 내가 학

KAIST MBA과정을 마치며

강 진 구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교에 다니던 8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첫 수업 시간에 SYLLABUS를 나누어 준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교수님들께서는 기껏해야 교재의 소개와 칠판에 대략적인 강의 진도계획 정도를 써주셨고 이를 받아적었던 기억이 난다. 여기서 내가 놀랐던 점은 이 SYLLABUS의 내용과 교수님들의 강의계획 설명만으로도 이 과목을 내가 끝까지 문제없이 마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2년간의 학업과정을 돌이켜 볼 때 내가 들었던 모든 과목에서 교재를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나 휴강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두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정규교과목 외에 수업시간마다 나누어 주시는 논문복사물, 강의록 등의 Hand-out의 양이었다. 아무리 교육인프라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KAIST에서 매과목, 매시간마다 나누어주는 복사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본 Techno-MBA 과정의 졸업학점은 51학점 이상이었고, 대부분의 과목이 3학점짜리(3시간/주)이어서 대략 20과목 정도를 수강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논문학기를 고려하면 봄, 가을의 정규학기에 4~5과목, 여름, 겨울의 단기 계절학기 동안 1~2과목으로 할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이정도쯤이야 회사일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하루종일 시간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였던 나는 실제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야 결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여유로운 생활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첫학기에는 5과목을 수강하였는데, 5과목을 일주일 동안 듣고나서 받은 Hand-out과 대략과목당 1~2 Chapter씩의 정규교재물의 분량은 웬만한 200페이지 책이상이 되기 일쑤였다. 그것도 대부분 영

어로 말이다. 교육과전전 연수원교육 중 들었던 1기 선배들의 경고(?)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랜 기간을 영어 Reading을 멀리하였고, 회사생활에서 오는 고정관념으로 머리회전이나 사고의 폭도 좁아졌던 내게는 (대부분 그러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너무나 힘든 첫학기였다. 게다가 난 이를 덕분에 처음이라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던 동기생들의 강요(?)로 첫번째 학기 반장을 맡게되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유익한 경험을 하였으나, 학업과 봉사를 병행하느라 훨씬 더 힘든 한학기였다고 생각된다.

학업에 있어서 뒤질 수 없다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첫학기의 학점은 회사에서 늘 받아오던 고과인 셈이어서, 투철한 임무완수(?) 차원의 강행군이었던 때문에 정말로 힘든 한학기였고, 모처럼 가정에 충실한 남편, 아빠가 되어 보겠다던 희망도 상당부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회사에서 익숙했던 7-4제의 생활리듬은 점차 밤과 낮이 뒤바뀌는 생활리듬으로 변해갔다. 내게 있어 감동적이고도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점은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첫학기를 보냈지만 졸업에 이르기까지 중간과제물과 Term Paper를 기일내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밤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모두가 일을 완수해내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그 일부라는 점이 자랑스러웠으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일을 마무리하는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현장에서 수고한 임직원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자부한다. **F**

(MBA기술경영전공 졸업생)

AIM 8기 입학식 및 대전 워크샵

최고정보경영자과정 (AIM)은 지난 3월 4일 서울 홍릉캠퍼스 1호관 국제회의실에서 제8기 입학식을 가졌다. IMF의 위기를 정보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입학했다는 8기 수강생들의 모습에서는 지난 어느 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긴장감과 진지함을 엿볼 수 있었다.

같은 주말 (3/6-7) 진행된 1박 2일의 대전 워크샵에서는 KAIST소개, 반도체설계환경 견학, 팀별 비즈니스 게임 등의 프로그램 외에도 IMF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좌담회가 개최되어 수강생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은행장 되려면 KAIST-AIM으로?

98년 2월 장은카드의 오세중 사장(1기)과 국민은행의 송달호 부행장(7기)이 각각 장기신용은행과 국민은행의 차기행장으로 선임됨으로써, 97년 가을 취임한 신복영 서울은행장 (3기)과 한미은행의 김진만행장(3기) 및 대동은행의 허홍행장(1기), 수출입은행의 문헌상 행장(4기) 등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AIM과정 졸업생 중 현역 은행장만 무려 6명이 탄생. 금융계에서는 AIM을 거쳐야 행장이 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는데....

KAIST AIM을 추천합니다. 7기 이종연 조흥증권회장

저는 조흥은행 은행장으로 재직시 “컴맹없는 은행”을 실현하기 위해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향후 정보기술의 중요성,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AIM 과정은 이러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정보기술, 정보산업 일반, 정보화경영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야말로 “정보기술과 현장경험 및 창의력이 결합된 생산요소로서의 지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IM 7기 수료식

AIM 7기 수료식이 8월 20일 KAIST 서울 홍릉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40명 전원이 수료했으며 13명이 개근상을 수상했다. 최우수논문상은 보람은행의 남진전무와 LG-EDS의 이민우 이사가, 우수논문상은 조흥은행의 박희영 부장, 삼성항공의 이영호 전무, LG-유통의 김명환 이사가, 우수실습상은 LG-CALTEX가스의 권오륜사장, 보람은행의 남진 전무, 장기신용은행의 황석희 상무가 수상하였다. 수료식에 이어 7기 조남원 삼부토건 사장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윤덕용 KAIST 원장, 안병훈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및 AIM교수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부동반의 사은회 모임을 가졌다.

'98년 봄학기 세미나

1) 경영공학/경영정보(MIS-MBA)전공 세미나

일 시	주 제	연 사
4. 7	정보통신 발전의 Paradigm의 변화와 대응전략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 14	EDI의 현황과 발전전망	최태창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원장)
4. 28	조직행동론의 최근 동향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5. 12	전자상거래와 사이버 금융구조의 미래	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5. 19	한국에니메이션의 현황과 그 발전과정	김석기 (한국에니메이션 제작자협회 회장)
5. 26	S/W 개발에 관한 창조와 혁신	김형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6. 2	비즈니스 공학: 데이터웨어하우스와 ERP	이희석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6. 9	환경과 경영학	김희경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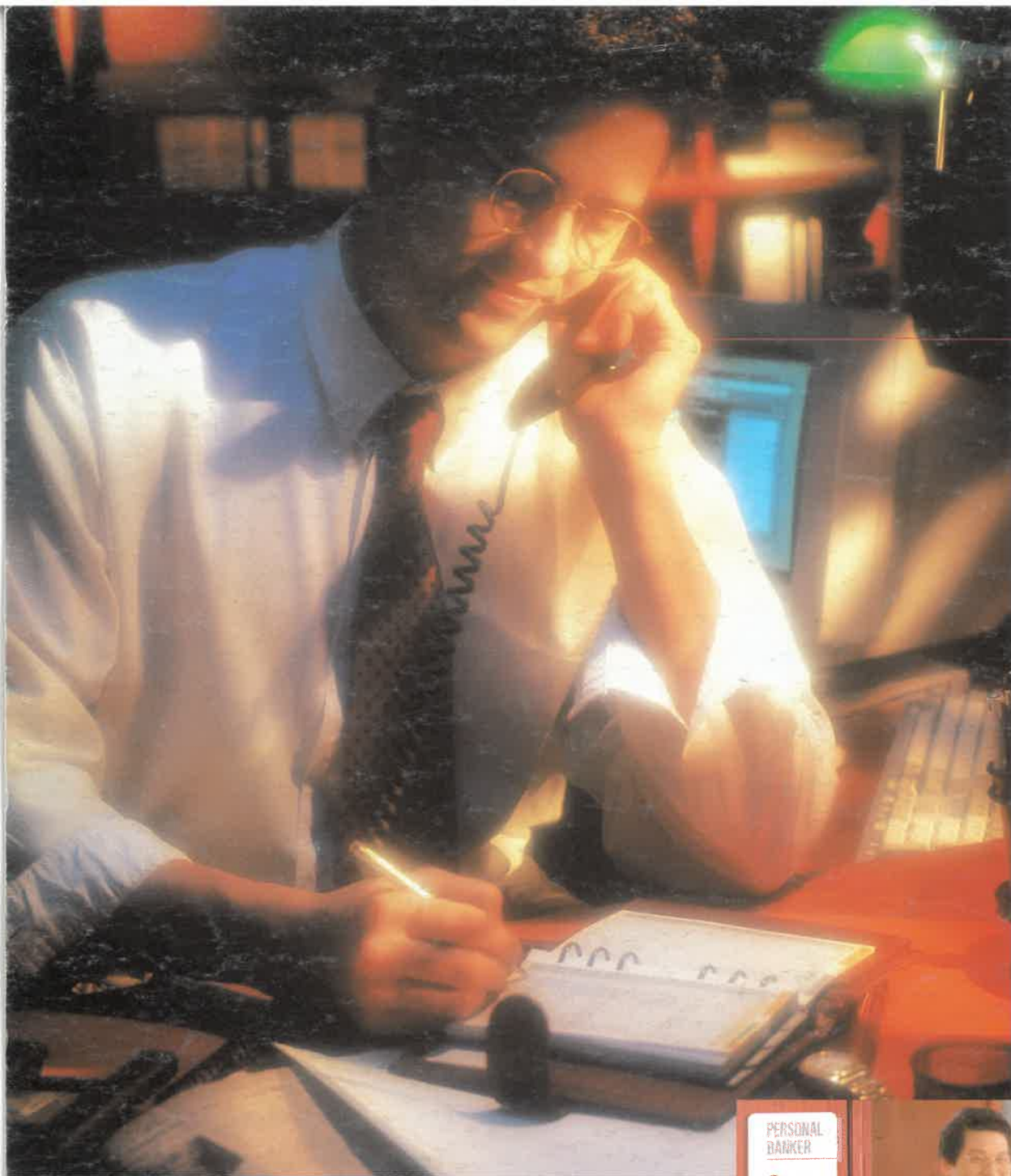
시간: 화요일 오후4시30분~6시, 장소:국제회의실(1호관 1층), 문의처: 전공사무실 황은정(☎ 02-958-3641) 이상희(☎ 02-958-3601)

2) 기술경영전공(Techno-MBA) 세미나

일 시	주 제	연 사
4. 1	Microprocessor 기술의 최신동향	경종민 (KAIST 교수)
4. 8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진형 (KAIST 교수)
4. 15	가상현실기술의 현황과 발전동향	김동현 (SERI)
4. 22	차세대 자동차기술	한동철 (서울대학교 교수)
4. 29	Display 기술의 현재와 미래	한철희 (KAIST 교수)
5. 6	21세기의 항공기 기술	최동완 (항공우주연구소)
5. 13	최근의 생명과학연구	유욱준 (KAIST 교수)
5. 20	지능형 소재 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희중 (KIST 교수)
5. 27	Rapid Product Development	양동열 (KAIST 교수)
6. 3	멀티미디어산업의 기술개발전략	백우현 (LG전자 부사장)
6. 10	태양에너지, 에너지저장기술 현황	김홍제 (에너지기술연구소)
6. 17	우리 과학기술의 전통과 근대화	박성래 (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시간: 수요일 오후1시30분~4시, 장소:1호관 5층 501강의실, 문의처: 전공사무실 노영아(☎ 02-958-3642)

* 특별한 경우에 세미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참가전에 사전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보람은행
퍼스널 뱅커입니다
”

'아주 특별한 친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게 -
보람은행 퍼스널뱅크가 귀하의 성공과 함께 합니다.



특별한 고객을 특별하게 모시는 보람은행 퍼스널뱅크 -
투자 및 자산관리는 물론, 세무 · 법률문제 해결까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분류 번호	199804012101	자료 물명	Frontier 제 3호
인수 일자	2003. 03. 05.	제출 자명	홍 보